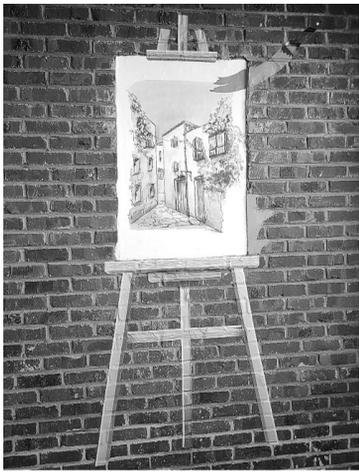


예술 입은 벽화 ... 노잼 도시의 꿀잼



‘여백의 미’



‘킹잼 광주 두들쟁이들’ 팀원들. 왼쪽부터 강희정, 송명중, 김선영, 김인영. <광주문화재단 제공>

도시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한다. 무채색 또는 단색의 회색의 공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새로운 옷(벽화)으로 갈아입고 산뜻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기다리는 공간도 있다. 이밖에 다양한 식생들로 이루어진 푸른 숲은 힐링과 여유,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기도 한다.

광주의 젊은 청춘들이 일상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벽화를 그려 눈길을 끈다.

특히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건물 외벽에 ‘예술’을 주제로 구현한 벽화는 신선하면서도 이채롭다.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창의예술교육캠프(창의랩)’ 일환으로 기획됐다. 창의랩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벽화가 그려진 곳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외벽 20곳. 참여팀 명칭은 ‘킹잼 광주 두들쟁이들’로 강희정 문화예술기획자가 랩장을 맡았다. 여기에 김선영 연구원, 김인영 공예 강사, 송명중 대학원생이 힘을 보탰다.

강희정 랩장은 “팀 명칭은 낙서하는 사람을 뜻하는 ‘두들’에서 따온 이름”이라며 “벽화를 토대로 한 것은 단순히 작품만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의미가 투영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두들쟁이들은 노잼으로 인식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리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광주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캠프’ ‘킹잼 광주 두들쟁이들’ 팀 참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외벽 20곳 7개월간 벽화·그래피티 활동 연말까지 포토존 활용 후 철거

활동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벽화에 대한 스테디를 진행하고 답사를 했던 기억은 의미있는 시간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두들쟁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벽화와 그래피티는 장르 개념부터 공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그림을 부착하는 것이 다양성과 작품성 있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은 동명동을 비롯해 계림동, 임동, 예술의거리, 평균타미 벽화거리를 답사했다. 또한 1세대 그래피티 작가 님블트(지성진)를 만나 의견수렴을 했으며 지역 외 타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 이화마을, 경희대, 북촌 등 벽화마을을 찾아가 골목 분위기, 주민 반응 등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벽화 제작 장소인 빛고을아트스페이스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물이다. 지난 1981년 건립

됐으며 주변 암반과 자연지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2층 모모홀, 5층 소공연장, 대강당 등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서한희 문화예술교육팀장은 “창의랩은 경계없는 상상과 실험, 예술이 광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등을 모토로 진행됐다”며 “문화예술 교육 연구 및 실험 등을 매개로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창의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입구의 QR코드를 찍으면 지도에 부여된 번호에 따라 각각의 벽화를 만날 수 있다”며 “이번 작업으로 붉은 벽돌의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는 색다른 예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색적이며 재기 발랄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2층으로 향하는 야외 계단에 부착된 ‘유려한 자유’는 마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을 환기하고, 2층 야외테라스의 ‘재발견’은 5개의 의자 모형을 구현해 누구나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각각의 벽화들은 올해 말까지 포토존으로 활용된 뒤 철거될 예정이다.

한편 ‘창의랩’은 ‘도시로 예술하기-예술이 광주를 바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에 지난 2022-2023년 선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태일문학상’ 다음달까지 작품 공모

곡성 출신 죽형(竹亨)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는 제6회 조태일문학상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와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창비, 문학들이 후원한다. 최근 2년 이내(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간한 시집을 시인 본인이 제출하거나 추천위원의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시상식

은 오는 10월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펼쳐질 조태일 시인 25주기 문학 축전에서 열리며, 상금은 2000만 원이다.

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공모 요강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조태일문학상은 어두운 현실에 온몸으로 맞선 저항시인이자 자연을 노래한 순정환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죽형(竹亨) 조태일(1941-

1999)를 기리고자 지난 2019년 제정됐다. 조 시인은 광주서중, 광주고, 경희대를 졸업했으며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1969년 ‘시인’ 지를 창간한 이래 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채광석, 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했다.

황형철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곡성 출신 조태일 시인은 불의한 시대 민주와 자유를 위해 울컥은 목소리를 시로 형상화했던 대표적인 시인”이라며 “조 시인의 시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응모돼 송고한 뜻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제 69회 호남예술제 입상자-관악

<p>〈심사위원〉 유영대 (충남대 교수) 김동수 (성신여대 교수) 이철웅 (연세대 교수) 이현주 (군산대 교수) 주민혁 (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p> <p>◇ 트럼펫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1 조유빈 (광주교대광주부설초6)</p> <p>◇ 클라리넷 초등부 5.6학년 ▲ 금상 2 문예준 (전주완초6)</p> <p>◇ 플루트 초등부 3.4학년 ▲ 은상 1 이준서 (광주교대광주부설초4) 3 조윤지 (살레시오초4) 5 조지승 (운리초4)</p> <p>◇ 플루트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3 양시은 (불로초6) ▲ 은상 7 김유현 (광주효덕초6)</p>	<p>▲ 동상 5 최서연 (전주교대군산부설초6) 9 김수오 (전주은빛초5)</p> <p>◇ 클라리넷 중등부 1.2학년 ▲ 최고상 2 전형주 (광주예술중1)</p> <p>◇ 클라리넷 중등부 3학년 ▲ 은상 1 이세준 (전주양현중3)</p> <p>◇ 플루트 중등부 1.2학년 ▲ 금상 4 임세린 (봉산중1) ▲ 은상 2 우이든 (광주예술중1) 6 성하담 (광주예술중1) ▲ 동상 5 김희진 (해룡중1)</p> <p>◇ 플루트 중등부 3학년 ▲ 동상 1 조현아 (전주양현중3)</p> <p>◇ 트럼펫 고등부 1.2학년</p>	<p>▲ 금상 1 윤예빈 (여수공업고2) ▲ 동상 3 박명찬 (장성하이텍고2)</p> <p>◇ 클라리넷 고등부 1.2학년 ▲ 은상 1 차주원 (전남예술고2)</p> <p>◇ 플루트 고등부 1.2학년 ▲ 은상 2 조은파 (전남예술고2)</p> <p>◇ 플루트 고등부 3학년 ▲ 금상 4 김예지 (군산영광여자고3) ▲ 은상 1 함지혜 (전남예술고3) 3 손지호 (풍암고3) 5 이하진 (2006년생) ▲ 동상 2 김시은 (송원여자고3)</p>
--	--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시산맥작품상’에 김이듬 시인 ‘입국장’

‘시산맥시문학상’은 강기원·이동우 시인 공동 수상

제14회 시산맥작품상에 김이듬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입국장’이며 상금은 300만원. 최근 ‘시산맥’ (대표 문정영)은 최간 시사를 갖고 올해 시산맥작품상에 김이듬 시인의 ‘입국장’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김이듬 시인, 이동우 시인, 강기원 시인

시산맥작품상은 지난 해 ‘시산맥’에 발표된 작품 가운데 기 추천된 후보작품 17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현재 진행형인 고통을 적절히 배치하여 전체의 아픔을 개인의 문제로 객관화함과 동시에 각 문장의 긴밀성으로 현실감을 증폭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이듬 시인은 2001년 계간 ‘포에지’로 등단했으며 올해의좋은시상, 22세기문학상, 김춘수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별 모양의 열목’, ‘명랑하라 팝 파탈’, ‘베를린, 달팽의 노래’, ‘히스테리아’ 등의 시집을 펴냈다.

아울러 올해 4회째를 맞은 시산맥시문학상은 강기원, 이동우 시인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각각 ‘거북’, ‘변주’이며 상금은 각각 200만원.

시산맥시문학상은 시산맥 회원으로 지난해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을 대상으로 심의를 한다. 심사위원들은 “‘거북’은 거북으로 치환된 시적 화자의 내면적 자아, 개인적 서사가 잘 이루어지면

서형상화했다”고 평했으며 “‘변주’는 변주하는 리듬이 기쁘고 빠르게 임하면서 응축된 힘이 있다”고 평했다.

강기원 시인은 1997년 ‘작가세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고양이 힘줄로 만든 하프’, 시화집 ‘내 안의 붉은 사막’ 등을 펴냈다. 제25회 김수영문학상 수상, 제1회 출판놀이 ‘주머니 속 동시집’ 공모에 당선됐다.

이동우 시인은 2017년 ‘시산맥’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제41회 신동업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서로의 우는 소리를 배운 건 우연이었을까’ 등을 발간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리는 전국 시산맥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문학뉴스 & 시산맥신춘문예 당선자 이인, 김시흥 평론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TEL 01509001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